‘국사’와 ‘역사’의 사이

리우 지에(劉傑)

1. 왜 ‘국사들’의 대화인가

최근 십 수년 간, 동아시아 3개국의 ‘역사인식문제’를 둘러싼 대화는 다양한 성과를 냈다. 중일 간의 역사대화 속에서 가장 주목받아 왔던 것은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행해진 공동연구이다. 2006년 10월 아베 총리대신이 방중하였고, 중일 정상은 양국 지식인에 의한 역사공동연구를 연내에 발족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해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합계 4회의 전체회합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 1월, 양국 위원에 의한 자국어 논문, 9월에는 번역 논문을 발표하였다. 중일 관계사 상 이와 같은 시도는 처음이며, 그 의의는 크다.

다른 나라 연구자끼리의 ‘대화’는 두 가지 레벨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연구회나 학회 등의 장을 이용하여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연구성과를 매개로 상대와 간접적으로 대화를 끊임없이 행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중일 역사공동연구는 횟수는 적었지만, 국사 연구자끼리가 직접 대화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진전이다. 근년, 이와 같은 대화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상호 이해도 깊어져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동연구의 근대사 부분 연구보고를 확인하게 되면 알 수 있듯이, 일본 측의 논문은 중국 측 연구자의 종래 연구성과나 중국 측의 사료를 거의 참고하지 않은 채 쓰여져 있다. 한편, 중국 측의 연구보고에는 일본 측의 사료나 연구성과가 방대하게 활용되고 있다. 즉, 양국의 역사해석에는 다양한 상이점이 보이지만, 근대 중일 관계사 연구는 일본 측의 사료와 선행연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상황 속에서 일본 측의 연구자에게 중국의 연구성과와 대화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일은 간단치 않다. 반면, 중국 측은 필요에 따라 일본 측 사료를 이용하고 있지만, 사료와의 대화는 반드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말할 수 없는 형편이다.

중일의 역사인식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연구자끼리 국경을 넘어 ‘지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일이다.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동연구’ 속에서 지금까지 대화가 적었던 국사 연구자끼리의 교류를 늘리는 것과, 상대방의 사료나 연구성과와 대화할 수 있는 연구자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 ‘국사’에서 ‘역사’로

1990년대, 일본의 대학은 ‘국사’학과를 ‘일본사학과’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학의 국제화에 대응해왔다. 교토대학 일본사학 전수의 소개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 일본 ‘국사’ 교육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 일본사학은, 이 일본열도에 태어나, 때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해온 사화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학문분야입니다. (중략) 물론 일본사학 전수에서도 많은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들・그녀들에게 있어 일본사는 외국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본인에 있어서의 일본사’만을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일본사회・일본문화는 고립되어 존재해온 것이 아니기에 동양・서양 여러 지역과의 관계도 중요한 연구테마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포함하여 일본의 대학에서 일본의 역사를 연구하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국사’를 ‘일본사’로 변경하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1990년에 당대중국연구소를 설립하여, ‘중화인민공화국사’의 편찬과 사료의 출판, 공간을 개시하였다. ‘국사’의 개념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국사’를 사용하지 않게 된 일본과 대조적이다. 물론 중국에서는 ‘당사’와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국사’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교과서의 ‘중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하여 ‘역사’ 교과서가 작성되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었다. 동아시아 공통의 ‘역사’는 쓸 수 있는 것인가, 지의 공동체를 모색하는 가운데서, 그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대화할 수 있는 ‘국사’ 연구자를 육성하는 것

근년, 대학의 국제화와 동반하여 자국 내의 ‘국사’와 ‘세계사’의 대화가 크게 진전한 듯 생각된다. 이것은 유학생을 많이 받아들여, 유학생에 대한 교육지도체제를 정비한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세계 속의 일본’, ‘세계 속의 중국’ 등의 표현을 빈번하게 듣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일본연구는 아직 발전 도상에 있으며, 일본의 ‘국사’와 대화할 수 있는 중국의 ‘국사’연구자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쌍방의 ‘국사’ 연구자는 번역사료나 번역된 연구성과를 통하여 상대의 연구자와 대화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중국의 일본사 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이노우에 키요시(井上清)의 『일본의 역사(日本の歴史)』였다. 이 저작은 1974년에 텐진출판사(天津出版社)에서 간행된 후, 일본역사의 스탠다드가

되었으며, 2011년에는 산시인민출판사(陝西人民出版社)에서 재판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읽혀지고 있다.

한편, 일본의 '국사연구'는 아시아나 세계와 어떤 거리감을 유지할 지 커다란 과제로 삼았으나 최근 2년간『일본역사(日本歷史)』의 게재논문을 검토하면 알 수 있듯이, 외국사의 시점을 도입한 '국사'연구는 적다. 또, 매년 9월호의 특집 '좌담회, 일본역사의 논점-쟁점' 테마는 '고세이바이 시키목쿠 42조론(御成敗式目四二条論)', '고대 여제 연구의 현황과 과제', '『쇼와천황실록』을 독해하다-전전기의 정치, 군사, 제국', '보신전쟁 연구의 현황과 과제' 등과 같이 지극히 '국사'적이며, 중국과의 접점은 적다. 최근『쇼와천황실록』을 테마로 한 것은 전전의 정치와 외교에 걸친 내용이라서 예년과 다르게 중국과의 관계가 언급되고는 있지만 '국사'끼리의 대화라고는 말할 수 없다.

'국사'의 대화를 보다 실질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연구자끼리의 교류를 진전시킴과 동시에 10년 후, 혹은 20년 후에 본격적인 국사 대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유학생이 증가하는 오늘날, 쌍방의 연구자가 협력 태세를 만들고, 일본의 언어와 문화에 정통한 중국사 연구자와, 중국 등 아시아의 언어와 사회문화에 정통한 일본사 연구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의 일본연구 발전에 협력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에 내가 관여하고 있는 '중일근대사사전' 편찬 프로젝트는 '국사'끼리의 대화이자, 젊은 국사 연구자를 위한 환경 정비이기도 할 것이다.

오늘 원탁회의는, '교과서'를 통하여 각국 '국사'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보고자의 문제제기에 이어 교육과 연구 두 가지 시점에서 '국사' 대화의 장래상을 그려보고 싶다.